

## 동역

성경 본문	사도행전 13:1~3
요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전 3:9).
찬송	219장 (통 408장, 주 하나님의 사랑은) 기대 (주 안에 우린 하나)
이과의 목표	선교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권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사역하는 동역의 장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면서 선교에 적극 동참하기로 다짐한다.



## I. 생각하기

1. ‘동역’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왜 그런가요?
2. 동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고,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 II. 생각 넓히기

## 1. 동역이 필요한 이유: 성경적 배경

선교에 있어서 동역의 필요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사역이 이루어지는 선교지만이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불장군처럼 모든 것을 혼자서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저런 차이를 뛰어넘고, 장애물을 극복하며, 서로가 협력하고 동역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13:1은 당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던 구성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젓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선지자와 교사는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대표적인 유대인이면서 부유한 지주 출신입니다. 시므온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름인 ‘니게르’는 ‘얼굴빛이 검다’를 의미하기에 여러 학자들은 그가 아프리카 출신의 후손이라고 추측합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이기에 루기오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헤롯의 젓동생으로 불리는 마나엔은 그와 함께 양육을 받은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정통 랍비 교육을 받았고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출신과 배경에 있어서 매우 상이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던 교회였으며,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신앙 공동체의 가장 우선적인 사명인 선교를 위해 차이와 다름을 뛰어넘고 극복할 줄 알았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할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질을 추구하면, 서로 안에 존재하는 차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차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나바는 여전히 바나바이고, 사울도 여전히 사울입니다. 다만 서로 간의 차이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서로 안에 존재하는 차이가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출신 배경, 교육 정도, 경제적 수준과 같은 것들이 중요한 관심 거리가 되어 서로를 향해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 2. 동역이 필요한 이유: 선교지의 현실

선교지에서는 더 절실하게 동역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선교 모델이



서구나 유럽의 선교사가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현지 교회와 지도자들 및 세계 각국에서 파송된 여러 선교사들과 동역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세계 기독교의 현실은 수십 년 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졌습니다. 20세기 초반 해도 전체 기독교인의 80% 이상이 북반구에 살았지만, 2010년에 와서는 세계 기독교인의 59%가 남반구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sup>1</sup> 기독교의 무게중심이 북에서 남으로 이동한지 오래고, 세계 여러 지역 간의 인력과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케 한 세계화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세계 선교라는 우리의 목표를 위해 서로 동역해야 할 필요성이 그만큼 커지게 되었습니다.

세계 기독교인의 숫자 외에 선교사 현황도 동역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딘버러 2010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세계 기독교 지도에 따르면, 선교사들은 그렇게 외국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더 많은 선교사들이 남반구에서 파송되고 있는 반면에 북반구에서 파송되는 선교사의 수는 현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때 선교사들의 목적지였던 남반구는 이제 새로운 선교사 파송 기지가 되었습니다. 많은 선교지가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역자들이 함께 일하는 현장이 되었고, 그래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동역하는 법을 배워야만 효과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선교지가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역자들이 함께 일하는 현장이 되었고, 그래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동역하는 법을 배워야만 효과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미완성으로 남아 있는 선교 과업도 우리에게 동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세기에 걸친 선교 사역의 결과로 이미 많은 나라와 지역에 자립적인 교회가 세워졌지만, 여전히 미전도 종족 그룹이나 창의적 접근 지역, 제한된 접근 지역,<sup>2</sup> 그리고 폐쇄 국가로 분류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1. Christianity in its Global Context, 1970-2020: Society, Religion, and Mission, published by Center for the Study of Global Christianity at Gordon Conwell Theological Seminary, June 2013. p.7.

2. 창의적 접근 지역은 공개적인 선교사 신분으로 사역을 할 수 없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선교사가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는 지역을 개방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이와 반대되는 지역이 제한된 접근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창의적 접근 지역, 혹은 제한된 접근 지역으로는 공산권과 이슬람권, 그리고 유대권 나라가 포함됩니다.



개인이나 특정 그룹이 할 수 있는 사역이나 역할이 제한된 이런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이 동역 관계를 통해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흘러보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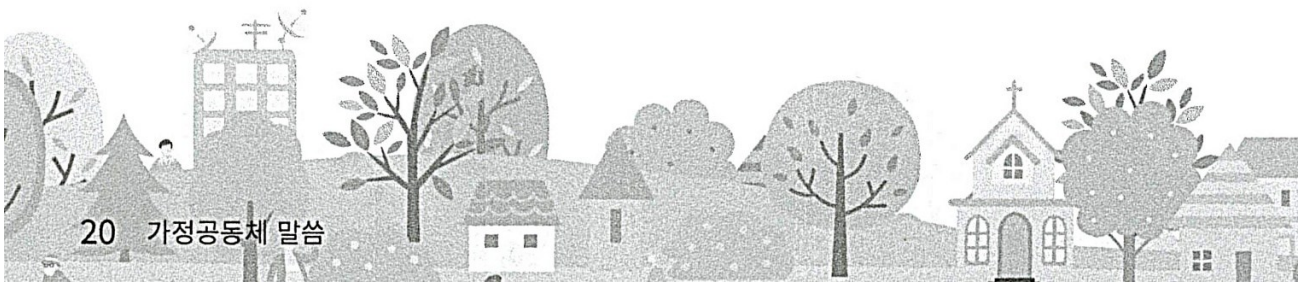
지난 2008년에 펜실베니아 주에 위치한 피츠버그 신학교에서는 태풍 카트리나로 피해를 입은 뉴올리언스 지역으로 단기선교 팀을 파송한 적이 있습니다. 장로교 재난 지원팀 (PDA: Presbyterian Disaster Assistance)의 안내에 따라 백인/흑인/아시안 학생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팀이 함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선교단체인 고인터내셔널 (GoInternational)은 각 교회에서 참여자를 모아서 단기사역을 위해 현지로 파송을 하는데, 2012년에 니카라과에서 동역한 팀원들은 미국, 한국, 온두라스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선교 현장에서 이와 유사한 동역의 사례들을 더욱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 3. 성공적인 동역을 위해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선교를 위한 동역에도 일반적인 동역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동역은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하나 이상의 개인이나 그룹이 협력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동역을 통해 실제적인 선교의 성과를 이루어 내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동역을 어렵게 하거나 방해하는 요소들을 찾아 제거하는 반면에 동역을 가능하게 하고 촉진하는 요소들을 찾아 실천해야 합니다.

먼저, 동역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1) 문화적 불감증: 자신이 속한 집단의 문화에 대한 우월감 (자민족 중심주의 Ethnocentrism)은 다른 문화에 대한 성급한 판단과 정죄를 불러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증진될 수 없습니다.
- 2) 의사소통의 부족 혹은 일방적인 의사전달: 동역은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충분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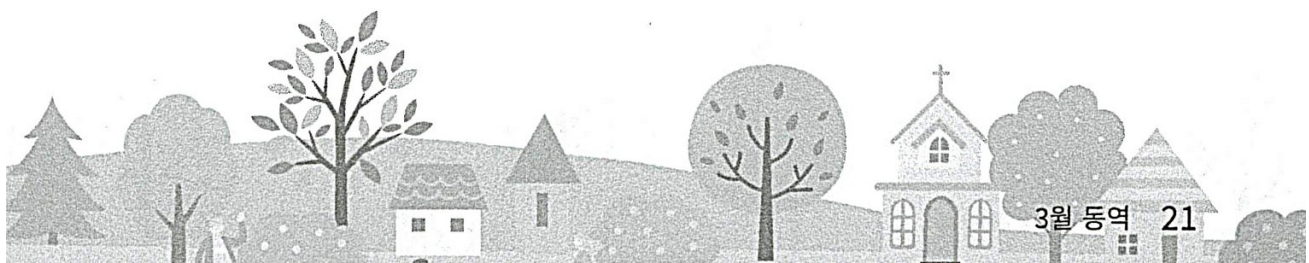


부족한 소통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방적인 명령이나 지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간의 대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 3) 건강하지 않은 의존: 동역의 반대말은 분리나 분열이라기 보다 지나친 의존입니다.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어느 한 쪽이 권한을 독점하고, 다른 쪽은 수동적이 될 때 의존성을 키우게 됩니다.
- 4) 성취와 결과가 없는 과정: 동역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견고한 관계이지만, 가시적인 성과와 열매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동역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동기부여가 되며, 초기의 열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 5) 해결되지 않은 개인간의 갈등: 동역은 결국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 '나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동역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들은 대략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존중, 능력에 대한 존중, 성숙에 대한 존중.

- 1)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존중: 여러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문화에서 서로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예수님의 성육신 원리를 적용해서 우리 자신의 문화와 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일하는 방식을 기꺼이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방식을 껴안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상대방의 능력에 대한 인정: 우리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지식이나 경험, 다양한 자원을 기꺼이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3) 상대방의 성숙에 대한 인정: 나와 함께 일하고 사역하는 이들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등한 존재로 보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하고 지시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또한 상대방이 내린 결정을 흔쾌히 따르는 것입니다.



역할의 반전을 받아들이고, 인도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기꺼이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 III. 생각살기

1. 내가 속한 교회나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 활동에 동참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 우리 소그룹이나 교회가 다른 교회나 전문 선교 단체들과 동역할 수 있는 연합 사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